

IEC/TC39 전자관

IEC/TC39 간사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장성호

1. 전자관규격

IEC/TC39는 1960년에 설립된 규격으로 전자관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해 표준화하는 것으로 관련 회로들 및 호환성을 위한 약세사리부품들을 포함하여 제정하며, X-ray tube는 제외되어 있다. 발행 규격은 68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규격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전반적인 전자관(Electronic Tube)에 관한 규격이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라운관으로 알고 있는 CRT(Cathode Ray Tube)에 대한 규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날로그시대에 세워질 시대로 전환되어 가면 색시존의 TV시장의 주를 이루던 브라운관 TV 수요의 감소에 따라 TC39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거론된 적 있었다. 하지만 TC39의 규격이 브라운관에 한정되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였다. 하지만 평판 디스플레이 출현으로 관련 규격을 제정하는 EC/TC108 및 TC110과의 통합도 고려하였지만 그러한 규격의 근본이 TC39에서 많이 시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후일로 미루도록 하였다.

CRT의 수요가 많이 감소는 하였으나 그 물량이 없어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TC39의 규격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격의 제정은 많은 어려움이 동반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미 생산한 제품에 대한 문제가 현재는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브라운관 모니터와 TV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석권하던 시절 생산된 브라운관의 대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숫자이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는 평판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전면 대체하였을 경우 폐기되는 브라운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기될 것으로 본다. 브라운관 생산의 대부분은 한국, 일본 및 대만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으며 아직 도한국과 대만에서 생산하는 브라운관의 숫자는 적지 않다. 폐기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않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이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진행도 하지 않고 있다.

2. 표준규격의 중요성

국제표준규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리라 보지만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 국제표준의 제정 과정에서 각국의 대표자는 외교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기술의 외교관으로 외교 전쟁을 한다고 할 수 있다.

TC39의 간사 역할을 하면서 이에 대해 느낀 점을 한번 말하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TC39의 규격은 많은 부분이 CRT에 관한 것들이다. 세계 각국이 CRT 시장에 전폭적으로 진입하던 당시에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 TC39의 의장 및 간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니까 제정된 많은 규격들에 의해 후발 주자로 뒤쳐 버트 우리의 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우리의 생산성 과 기술 개발의 결과로 시장 점유율의 위를 하였지만 국제 규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제표준 제정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 뒤에는 국가적인 인식 부족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 대국 2위를 달성하였다고 하나 국제 규격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고 본다.

많은 선진국들이 초기에는 기업보다 국제표준 활동에 국가적인 지원을 많이 하였다. 차츰 기업들이 국제표준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부터는 관련 기업들이 서로의 미래와의 이해 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기업들의 인식이 바로 눈앞의 이익이 더 급하기 때문에 국제표준 활동에 인식은 미미한 편이라고 본다. 간단히 예를 들면 TC39 활동을 하던 중 CRT의 폐기 문제로 인하여 일본의 대표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일본 굴지의 CRT 제조업체 및 관련 부품 회사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러한 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을 기업들이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업체와 전문가들을 만나려면 대부분

회의 소집을 하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당장의 활동 성과에 대한 인식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 규격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은 물론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분간 확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제 국제표준 활동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지원 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준이다. 지금과 같은 지원으로 앞선 기술이 내국자 간의 이해 관계가 복잡한 TC나 SC의 국제 의장국이 내국자를 계속 확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에서 모든 국가가 국제표준의 우위에 선다는 것은 각국의 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착은 대단하며,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산업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제표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을 많이 제정하고

| 기술표준 2007. 3

